



3. 감사는 미래를 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앞으로의 삶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신뢰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염려합니다. 건강, 자녀들의 앞날, 경제적인 문제 등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추석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믿음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지난 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 도 ----- 인 도 자
찬 송 ----- 찬송가 435장 ----- 다 같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하소서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 후렴 >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순교회

추석
가정예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살전 5:13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559장 ----- 다 같 이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 가 족 중

성 경 봉 독 ----- 시편 136편 1절 ----- 다 같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말 씀 ----- 인 도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추석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만 단순히 전통 명절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특별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말씀 속에는 감사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1.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변합니다. 기쁨의 날도 있고, 눈물의 날도 있습니다. 넉넉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고 선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곧 인자하심은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2. 지난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넘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억하며 매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반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병중에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 일터에서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은혜,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